

주일에배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주일에배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8년 7월 1일 (제957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겸손의 존귀함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꽃
 할미꽃의 겸손히 고개 숙인 모습이
 내 맘을 사로잡노라
 우아한 모습에 웃음 지며
 세상사 헛되고 헛된 욕심
 만족함을 모르는 인생
 욕심 탐심 버리고 내 모습 닮은꼴 되란다
 부드럽게 향기를 풍기며
 우아한 모습과 자주 빛 입술
 웃음 지며 날 사로잡노라
 아~~이제야 할미꽃 겸손의 존귀함과 미덕을 알듯하오

장성 기도원 가는 길에서
 朋友

붕 우 컬 럼

납작 앞드려라

“바람이 불 때는 무조건 납작 앞드려라. 괜히 나뭇잎 쓸지 마라. 아무 소용없는 일이고, 되레 먼지만 뒤집어쏜다.”
 이것은 베트남 폭화자들을 대동하고 온 선교사 폴 킴에게 한 말이다. 베트남에서 우리 교회와 나에 대해 시비를 가리려 애 쓰지 말라는 당부였다.

바람이 불 때는 앞드리거나 피하는 것이 제일 좋다. 바람과 맞싸워서 얻을 것은 없다. 강한 바람은 흐트러뜨리고, 망가지게 하고, 익은 열매를 떨어뜨린다. 그러니 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앞드리는 것이 상책이다. 아무리 강한 바람이라도, 태풍이나 허리케인도 영원하지 않는 법,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전자가 뜨거우면 식을 때까지 가만 뒹야 한다. 괜히 뜨거울 때 만지면 손 데고, 행여 주전자를 놓치기라도 하면 뜨거운 물이 사방에 튀어서 많은 사람이 다치

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당신을 그저 마리 아와 요셉의 아들로 생각하는 곳에서는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조용히 떠나셨고, 당신을 잡으려고 덤비는 자들에게서도 떠났었다.
 맞붙어야만 용기요, 믿음이 아니다. 거센 파도가 유능한 해군을 만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훈련 받는 군인이 아니라면 굳이 거센 파도에 뛰어들어 생사를 걸 필요가 없고, 사서 고생할 필요가 없다.
 때를 아는 것이 지혜요, 기다림은 믿음 있는 자들의 특권이다. 전도서에도 만사

에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5장에는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엡5:15)라고 말씀하심으로 지혜 있는 자는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자임을, 또한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잠19:2)고도 말씀하심으로 매사 적기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
 바람이 불 때는 앞마당도 쓸지 말고, 문 열리지 않게 문단속 잘하고, 납작 앞드려 때를 기다려라.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사43:18~25)



과거의 노예가 된 자는 어리석은 자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과거의 노예가 되어 사는 자입니다. 과거에 매몰되어 사는 자, 과거라는 사슬에 얽매어 움짱달짝도 못하며 사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요? 절대 그런 자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사 43:18~19). ‘너희가 과거에 얽매이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과거는 부도난 수표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난 일은 잊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베드로가 어린 비자 앞에서 스승인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베드로가 그런 겁니다. 대역 죄인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그는 그 죄에 눌러 살았습니다. 예전처럼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갔지만 의욕도 없이 그저 그물만 던져놓고 무의미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무슨 미래가 있었겠습니까? 어느 날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고기를 구워 허기를 채워주신 후에 묻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동일하게 물으셨습니다. 그 때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요21:17). 예수님은 베드로를 크게 사용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베드로가 과거 죄의 사슬에 얽매인 것을 아시고 그것부터 잘라내게 하신 것입니다. 이미 그는 닭이 우는 소리에 회개했지만, 여전히 죄에 눌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잘라내신 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새로운 목표, 비전, 미래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합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행3:19).

고름이 결단코 살 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과거를 잘라내야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의 죄, 실수는 회개하면 잘라집니다. 회개하고도 그것에 눌러있다면 용서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꼴이 됩니다. 무디는 ‘사람이 회개 한 것을 또 회개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

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미7:18~19). “내가 너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너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히8:12).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용서란 안 보이는 곳에 죄를 놓는 게 아니라 깊은 바다에 던져 완전히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과거를 잘라내지 못했다면 대 사도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휘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던 그가 과거를 청산했기에 사도요, 전도자로서 새 일을 이

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

도 과거 여섯 남자를 데리고 사는 부끄러운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회개했기에 동네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 역시 목사 될 자격이 없으나 과거를 회개했기에 당당히 주의 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집을 왔으면 친정을 잊어야 잘 삽니다. 그저 늘 친정 생각에 눈물을 흘리고, 걸핏하면 찾아가서 하소연하면 절대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민족이 자그마한 일에도 불평하고 낙심한 것은 과거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이 좋았어. 그나마 그 때가 나았지.’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나안이라는 미래가 다가오지 못하고 다음세대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핏대를 쫓아가는 일을 함에 있어 먼저 한 일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전 일을 잊는 것이 새 일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

당치 아니하리라”(눅9:62)고 하시며 과거의 사슬에 사로잡히지 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악한 마귀는 과거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마르틴 루터에게도 어김없이 마귀가 나타나서 과거를 들었습니다. 그 때 루터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래, 나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그게 어떻다는 거야. 과거는 다 회개했고,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어찌라는 거야.” 그렇게 당당하게 과거를 청산했다는 믿음을 선포하고 마침내 그는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것

을 다 아십니다. 다만 과거를 청산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어떤

사

람은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잊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학문의 최고 상아탑인 가말리엘 문하생이요,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 로마 시민권자인 과거의 자기를 배설물처럼 여겨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며 과거의 영광만을 운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대개는 공상떨며 살고 있습니다.

왜 과거를 끊어내지 못하는 줄 압니까?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입니다. 그 잘난 자존심 때문에 잘못했다는 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사울이 그랬고,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죄에 대해 변호하느라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막다른 데 도달하니 자살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었지만 나단 선지자의 말에 바로 잘못을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님이 그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는 새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미 흘러가버린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여러분, 자존심을 세우려면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자존심을 버려 자존심을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 사람의 형편이 안 좋을 때 멀리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마땅히 친구를 대접할 길이 없는 이 사람은 친한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것도 밤에 말입니다. 자존심을 버린 겁니다. 그 사람은 친구집의 대문을 두드리며 보리떡을 강청합니다. 친구는 귀찮고 짜증났지만 행여 잠든 가족들이 깰까봐 이 사람에게 보리떡을 줍니다. 그 보리떡으로 이 사람은 찾아온 친구를 넉넉히 대접하고 자존심을 세웁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뽕나무로 올라간 사개오를 보고 예수님이 그의 집에 머무신 것 아닙니까? 딸을 고치기 위해 개 취급을 받았지만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부족한 수로보니게 여인도 동일합니다. 잠깐 자존심이 밟힐 수 있지만 목적인 바를 이루면 자존심이 다시 사는 것 아닙니까? 자존심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더욱이 하나님 앞에 무슨 자존심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도 수치와 부끄러움과 자존심을 버리고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말입니다. 목적을 이루는데 자존심은 사치요, 걸림돌일 뿐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계속 자존심을 세웠다면 그는 계속 문둥병 환자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버릴 때 새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광야 같은 삶에 길이 나고, 사막 같은 삶에 강이 나길 원하십니까? 과거를 잘라내십시오. 과거의 죄는 회개하여 청산하고, 과거의 영광도 잘라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황무지 같은 삶에 꽃이 피고, 마른 땅에 샘이 흐를 것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할렐루야!

전화 한 통화로!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객원컬럼 ::

:: 아름다운 인생 ::

친밀한 관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와 친밀하게 사랑을 나누고 싶으셨기 때문이다. 독처하는 아담을 좋지 않게 보신 것도 역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 스스로 고독하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창2:18).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길 원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창2:19).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사랑스런 자식에게 각종 장난감을 사주고 즐거이 뛰노는 아이를 바라보며 대견해하는 아버지의 넉넉한 미소를 느끼게 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사 43:21).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은 멀리한 채 제 갈 길로 가며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다. 어찌 이스라엘 백성뿐일까?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좇아온 것이 인류역사 아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이 땅에 내려와 죽음을 택하시면서 까지 인간을 세상에 구원하시려는 사랑의 절정을 몸소 나타내셨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얼마나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갖는 사랑의 무게가 얼마나 큰 지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여겨진다. 우리는 살아가며 무수히 하나님을 실망시킨다. 죄 짓고, 또 죄 짓고,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 계속 범죄한다. 연약한 육신을 이기지 못하여 눈물로 회개하고서도 또 이겨내지 못하는 수가 허다하다. 그럼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를 멀리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돌아온 탕자의 탁월한 선택은 자신의 잘못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왔다는 사실이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가운데 유독 실수가 잦고 뭔가 시원찮아 보이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를 볼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 성숙해지고 인격적으로도 흠 없이 성장해가길 원하신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진정 육신의 아버지처럼 친밀하고 살갑게 대하는 것이다. 좀 야단맞았다고 방에 처박혀 웅크리고 있는 자식보다는 잘못했다며 품으로 달려드는 자식이 더 사랑스러운 법이다.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죄가 문제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용서 받았음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죄에 얽매어 종노릇하지 말고, 담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유로운 삶을 누리자.

한은택 목사

:: 신앙논객 ::

불광불급(不狂不及)

유럽의 축구 강호 포르투갈의 국가 대표이자 세계 최고의 명문 클럽 레알 마드리드의 에이스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가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헤트트릭(한 경기에 한 선수가 3골을 넣는 것)을 기록하는 듯 맹활약을 펼쳤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일화가 많은 언론을 통해서 소개되었는데, 먼저 그의 신체 나이는 실제 나이인 33세보다 열 살이나 젊은 23세라고 한다. “41세까지 선수 생활을 하겠다.”고 자신하는 그의 몸은 체지방률과 근육양이 전문 보디빌더 수준이며, 그렇게 되기까지 운동으로 매일 팔굽혀펴기 1,000번, 윗몸일으키기 3,000번을 하는 꾸준한 노력이 뒤따랐다고 한다. 한 팀에서 함께 뛰었던 동료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경기를 마치고 샤워실로 걸어가는 동안에도 양동이에 물을 담아 들고 다니며 운동을 했고, 그의 집에 초대되어 가보니 식탁에는 샐러드와 닭가슴살, 물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식사를 마친 뒤에는 공을 가지고 와서 함께 축구를 하자고 했으나, 그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도 축구공을 꺼안고 잘 정도로 축구만 생각했다. 7살 때부터 축구를 본격적으로 배우

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연습 후 공을 닦고 낡은 축구화를 수선하는 일로 메워야 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18살의 나이에 좋은 감독과 팀을 만나면서 축구 인생에 꽃을 피울 수 있었다. 불광불급(不狂不及)!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다. 세상에 미치지 않고 이를 수 있는 큰일이란 없다. 세상의 다른 분야에 수많은 성공자들의 공통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은 모두가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또 그 일에 미쳐 있었다. 사실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다. 우리 목사님도 예수에 완전히 미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셨기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임 받고 계시지 않은가. 목사님이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중심으로 사는 사람임에는 어떠한 반론의 여지도 없다. 어떤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네가 사랑하는 것이 너 자신이다’.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성공을 이루지 못했다면 진지하게 자문자답(自問自答)해보라. 호날두처럼, 목사님처럼 그 일을 정말 사랑하고 그 일에 미쳐 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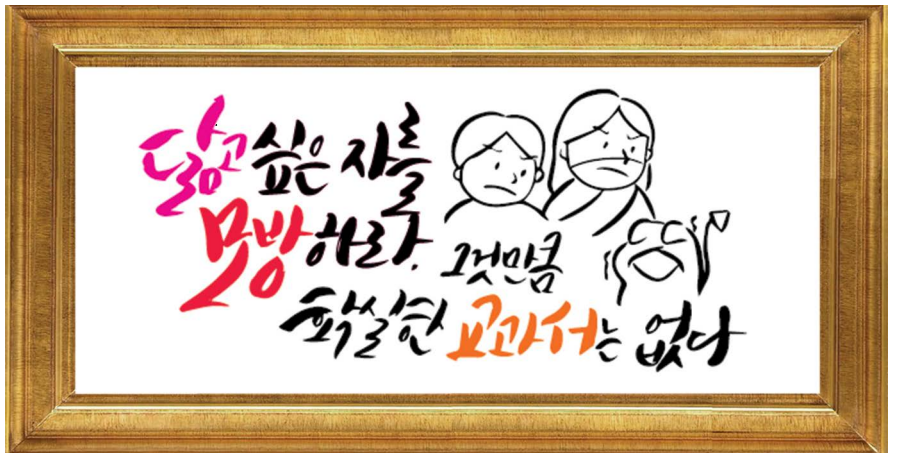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내게 맡겨주신 자리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복된 자리인지 느낀다. 13년간 중고등부 교사로서, 그리고 영상으로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니 맡겨주신 직분과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더욱더 깨닫게 된다. 작년 한 해를 결산하면서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자리에서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껴지니 내게 맡겨진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너 아니면 사람이 없냐?”는 음성을 듣고 다시 뛰었던 것처럼, 전에는 스스로 부족함을 많이 느껴서 누가 대신 해줬

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셨다. 이제는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저 아니어도 하실 수 있잖아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를 써주세요.’라고 고백할 정도로 성장했고 그로인해 직분을 감당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지,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다. 이시대 목사님께서 JC아카데미를 통해 말씀해주셨던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봉사와 수고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더욱 더 성숙한 크리스천의 모습을 기대한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4:2) 이은성 형제 es2563@naver.com



:: 생명의 말씀 ::

용서받아본 경험이 없는 천사

2003년 ‘세계목회자 영성세미나’, 외국에서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속속 한국으로 입국하셨다. 그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오시는 ‘프레드 로버츠’ 목사님을 신경 써서 모셔야 하는 날이었다. 의전팀 담당이었던 나는 환영팀과 함께 긴장된 마음으로 입국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을 기다려도 그분은 오시지 않았고, 문득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본국의 비서진과 통화하고 추적해본 결과, 어제 이미 서울에 도착하셨다는 것이다. 비서진 없이 홀로 입국하신 로버츠 목사님은 환영 의전은 고사하고 직접 호텔을 수소문해서 찾아가신 것이다. 최악의 의전 사고가 일어났다. 문제의 원인은 비서진들 간에 소통상의 실수를 꼼꼼히 확인 못한 나의 잘못이었다. 로버츠 목사님과 총회장 목사님께서 함께 계신 자리에서 자초지종이 보고되었고, 허탈한 웃음만 지으시는 총회장 목사님 앞에 나는 죄인의 모습이였다. 하루 일정을 결산하는 그 날 저녁! 어떤 징계라도 달게 받을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섰다. 그런데 아무런 추궁도 없이 피곤할 테니 가서 쉬라고 하신다. 그 이후

로도 그 날의 실수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언급도 없으셨고, 매 해 영성세미나 때마다 더욱더 중추적인 일을 맡겨주셨다. 큰 실수에 대해 통 큰 용서의 은혜를 받은 나는, 다시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할 수 없기에 더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다. 신학자 어거스틴은 말했다. 귀중한 복음전도 사역에 왜 천사가 아닌, 죄 많은 인간에게만 특권이 주어지는가? 그것은, 천사는 용서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벧후2:4). 그러나 인간에게는,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추궁 없는 용서가 베드로를 살렸다. 죄가 깊을수록 용서의 은혜도 깊다. 그러나 우리는 반복적인 용서에 만성화되어 그것을 악용해선 안 된다. 그것은 곧 용서를 베푸는 자에 대한 모독이다. 보혈로 용서받은 자들의 삶은 개가 그토 한 것을 도로 먹는 반복된 어리석음을 버리고(잠26:11),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하며(히12:4),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야 한다(빌2:12). 송직화 목사 jesus_allinall@hanmail.net

치약 짜듯이 하면 된다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우리의 삶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마가렛 대처 전 영국수상이 남긴 많은 말들 중에 내가 좋아하는 명언이다. 이 명언은 대처의 말이기도 하지만 예수중심의 슬로건이기도 하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 보자.’라고 매주일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뿌린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한다’는 목사님의 말씀은 무엇이든 작심삼일을 넘기기가 어려운 나에게 귀중한 지표석이 된다.

아주 오래 전, 목사님께서 주일예배 시간에 습관의 중요성을 설교하실 때였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주시면서 매일 조금씩 짜내는 치약이 처음에는 통통했다가 결국에는 꺾꽂이 눌러도 나오지 않는 것을 예로 들어주셨다. 그날 들은 여러 말씀과 예화 중에서 유독 치약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 후로 나의 결심이 흔들릴 때면, 매일 짜는 치약을 만지작거리면서 내 마음을 다잡는다.

불규칙한 식습관과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이유 없이 무릎이 아파서 잘 걷지도 못했고, 팔다리가 저리고 배탈이 나서 응급실을 한 달에 한 번씩 가기도 했다. 이렇게는 못살겠다 싶어서 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하기로 다짐하고 요가를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돈까지 내가면서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나.’라는 후회가 물밀듯이 차올랐다. 내 발등을 내가 찌었다 생각하며 괴로운 시간을 보냈는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치약 짜듯이 하다보면 재밌는 날이 오겠지.’라는 생각에 기도하는 맘으로 요가센터를 매일 찾았다.

정신을 차려보니 벌써 3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처음에는 주 2회도 벅차기만 했는데 지금은 주 5일, 주 6일, 센터에 가서 운동을 한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또 시작하게 되었다. 걷는 것도 힘들어서 다리를 절때가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마라톤 연습을 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10km 마라

톤 참가를 목표로 연습을 시작하였다. 지금은 100m만 뛰어도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지만 이것 역시 치약 짜는 마음으로 매일 10m씩 늘린다면 분명 10km 마라톤을 쉬지 않고 주파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매일 하는 나의 행동과 말들이 아주 사소한 것 같아도 그 하루, 이들이 쌓여서 한 달, 두 달이 되고 1년, 2년이 된다면 결국 내 인생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된다는 것을 요즘 새삼 깨닫고 있다. 물론 쉽지는 않다. ‘아! 오늘은 하루 쉴까?’라는 생각이 매일 든다. 하지만 한 손에 치약, 한 손에 칫솔을 들고 마음을 다잡는다. ‘이 치약이 다 없어질 때면, 난 더 건강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그리고 새삼 기도를 드린다.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도 매일 조금씩 더 쌓여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매일 매일이 되게 해달라고 말이다.

전훈지 자매
ppjee@hanmail.net

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영생복락의 천국과 영벌의 지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영생의 문제는 우리 인생의 선택 중에 가장 중요한 선택이며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입니다.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까?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새벽을 깨우나~

수 년 전, 사이쇼 히로시의 ‘아침형 인간’이란 서적이 출간되고 나서 대한민국에서도 한때 아침형 인간으로 살아보자는 붐이 크게 일었었다. 그러나 어느덧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미 잊혔고, 일부 성공자들과 노력형 인간들, 그리고 벌써 아침잠이 없어진 노인들에게서나 아침은 여전히 가치 있는 시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많은 성공자들의 책을 보면 그들은 새벽을 깨워 묵상과 아침운동, 신문읽기를 마치고 회사업무의 대부분을 일반 직장인들 업무 시작 전에 마무리지어놓는다. 그리고 아직 사회적 성공자는 아니지만, 진행형인 노력형 인간들은 성공자들을 본받아 새벽을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를 얻는 법!

책을 지속적으로 읽다 보니 성공자들의 습성이 눈에 보이고, 대부분 그들이 새벽을 활용하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었다. 깨달아 안 이상 도전해보고 싶었고 결국 이번에도 책이 나를 움직여, 어느덧 반년째 새벽을 깨우고 있다.

기본적으로 어둠은 선한 창조적 활동을 방해한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악은 어둠이다. 어둠은 게으름을 야기하고,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가치 없는 늦은 밤 생활을 통해 활기찬 아침을 포기하게 만드

는다.

‘김밥 파는 CEO’의 저자 김승호 씨는 ‘생각의 비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상은 6시를 아침저녁 하루 두 번 만나는 사람이 지배한다.” 그만큼 새벽시간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야기일 테다. 이제 밤의 즐거운 유혹을 포기하고 새벽을 깨워보자. 우리는 늘 곁에서 보고 있지 않는가? 우리 목사님의 새벽의 삶을.

장명훈 집사
jjoshua@hanmail.net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네 안에 있는 악을 굶기고
선에게 먹이를 더 많이 주는 것이다

Good News

‘죄와 벌’이라는 유명한 장편소설을 쓴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27세의 젊은 나이에 국가에 반역한 죄를 짓고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혹독하게 추운 겨울날, 나무기둥에 묶여 사형집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이 나고 집행관이 마지막으로 5분의 시간을 허락하였습니다.

움과 후회가 몰려왔다고 합니다. ‘죽음이란 무엇일까?’, ‘죽은 뒤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까?’ 번민 가운데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황제의 특사가 뛰어 들어와서 도스토옙스키를 살리라는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극적으로 살아난 도스토옙스키는 예수님을 만나서 남은 인생,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통찰력 있는 많은 작품을 남기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시종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은 마치 사형집행 전의 도스토옙스키의 입장과 같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죽으

부끄러운 고백

2년 전, 고등학교 동창생이 말레이시아로 선교를 하기 위해 떠났다. 힘들게 살아가던 친구였기에 선교지로 보내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고 뭐라도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아쉬움으로 보내고 말았다. 가끔씩 들려오는 원주민 선교의 글을 읽으면서 지난겨울, 나도 원주민 선교를 해보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말레이시아에 도착했다. 말레이시아의 비포장도로 150여 킬로미터를 종단하면서 진행할 일주일간의 원주민 선교에 관한 프로그램을 보고 나는 시작도 못한 채 두 손을 들고 포기했다. 그리고는 쿠알라룸푸르를 벗어나 지게 여행하고 귀국했다. 방학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캠프 여행을 세 번째 가고 있지만 선교는 나와는 무관한 일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반년의 시간이 지났고 우연히 가족여행으로 간 곳이 베트남의 호치민이었다. 그곳에서 만난 지인으로부터 베트남의 아픈 역사를 들었고, 호치민 시내에서 한 시간만 차를 타고 나가면 상상을 초월

하는 열악한 환경의 베트남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호치민에서 교육사업을 할 것을 추천받았고 돈을 많이 벌면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나 준비 중이었던 유아원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시작도 못하고 보류상태이다. 베트남어를 배우기 위해서 시작한 공부는 한 달도 못 되서 포기를 했고, 업무상 호치민을 가면 관광객처럼 좋은 곳이나 다니면서 쇼핑을 하고 돌아오고는 했다.

멀리 이국땅에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며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뭔가 작은 도움이 되고 싶었지만, 언제나 그 마음은 현지에 도착하기 전에 사라져버리고 어느 사이에 현지 관광객이 되어 보냈던 많은 시간들이 부끄럽게 여겨진다. 그러던 차에 들려온 목사님의 베트남 집회 소식은 근래 들어서 들게 된 최고의 희소식이였다. 먼 곳에 나가지 못해도 선교사역을 나가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작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겼기 때문이

다. 골방에서 그곳의 영혼을 위한 기도에 동참할 수 있고, 작은 물질이지만 목사님을 통하여 그곳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고 있다. 마음으로는 열대의 밀림 숲을 헤치고 다니면서 원주민 선교사역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버지에게 학대당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소녀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메신저도 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와 많지 않은 물질을 그곳으로 보내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글 골짜기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는 찬송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찬송가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목사님과 멀리서 선교사역을 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해드린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군이 되리라”(엡3:7).

오자유 집사
lovelyactor@naver.com